

## 한국 지명의 문화정치적 연구를 위한 이론의 구성

김순배\* · 류제헌\*\*

### A Theoretical Construction for the Cultural-Political Study on the Place Names in Korea\*

Sun-Bae Kim\* · Je-Hun Ryu\*\*

**요약** : 인간 거주역의 오랜 역사와 완충적인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한국 문화의 통시적 역동성과 공시적 다양성은 한국 지명의 이중성과 중층적 다양성에 중요한 배경과 원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한국 지명의 변동 과정은 상이한 사회적 주체들이 문화의 의미를 둘러싸고 벌이는 갈등과 경합의 권력 관계를 연구하는 문화정치학 분야에 비교적 적절한 연구 대상으로 주목된다. 한국 지명에 대한 문화정치적 연구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장소 아이덴티티, 영역 경합, 스케일 정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 지명의 문화정치적 연구를 위한 이론의 구성을 시도하였다. 지명은 자연과 사회적 주체를 지칭하며 이들의 아이덴티티를 재현하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이론으로서 안게른과 카스텔스의 아이덴티티 이론, 페쇠의 동일시 이론, 홀의 디코딩 이론, 볼로쉬노프(바흐진)의 이데올로기적 기호 이론이 사례를 통하여 실험되었다. 사회적 주체의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를 재현하는 지명을 매개로 장소 아이덴티티 내지는 영역적 아이덴티티가 구축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포함과 배제의 권력 관계가 개입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이덴티티, 이데올로기, 권력 관계라는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므로, 경계, 영역, 영역성, 영역화, 영역적 아이덴티티 등과 같은 개념을 포용하는 스케일 정치라는 관점을 약간의 사례에 실험적으로 적용해 보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정치이론을 토대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을 단위로 하는 기초적이고 학제적인 지명 연구를 통해 지명의 문화정치적 사례가 연구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한국 지명, 문화정치학, 장소 아이덴티티, 이데올로기적 기호, 권력 관계, 영역 경합, 스케일 정치

**Abstract** : Korean peninsula has a long history and a geopolitical location as a buffer zone, which has provided the conditions for cultural dynamism and diversity across space and time. The changing processes of place names in Korea is considered to be better suited to the study on cultural politics that is interested in the culture wars over the meaning of culture among different social subjects. In order to ensure the legitimacy of cultural politics for the study of place names in Korea, this study attempts to make a theoretical construction based on the concepts of place identity, territorial contestation, and the politics of scale. Cultural and linguistic theories to be best applied to the study of place names in Korea are the theories on Angehrn's and Castells' identity, Pêcheux's identification, Hall's decoding, and Voloshinov's ideological sign. Power relations involved in the inclusion and exclusion are necessarily concerned with the process of constructing a place identity or territorial identity by means of a place name, which represents identity and ideology of a social subject. In the examination of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take the elements of identity, ideology and power relations into consideration. In this study, therefore, the politics of scale is experimented for its

\*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수료(Ed.D Candidate,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ogeo@hanmail.net

\*\*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hryu@knue.ac.kr

applicability in the study of place name in Korea, which is expected to accommodate concepts of boundary, territory, territoriality and territorialization. In the end, it is suggested in this study that a series of basic and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the cultural politics of place names in a range of area should be undertaken along with the enough theoretical knowledge of cultural politics.

Key Words : place names in Korea, cultural politics, place identity, ideological sign, power relations, territorial contestation, politics of scale

## 1. 서론

이름(name)을 얻는다는 것은 형상(shape)으로서의 공간(space)을 얻는다는 것이고, 이름이 있다는 것은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사실과 현상의 출현을 위한 조건이 성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張載(2002, 31)는 그의 저서 『정몽(正蒙)(天道篇)』에서 “형상을 얻기 이전의 것은 뜻을 얻으면 이름을 얻고, 이름을 얻으면 형상을 얻게 된다. 이름을 얻지 못하면 형상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도를 말하면서도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으면 이름도 말도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sup>1)</sup>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老子는 “無名天地之始, 有名萬物之母(道德經 一章)(김용욱, 2000, 100에서 재인용)”라는 표현을 통하여 이름(name), 존재(existence), 형상(shape)의 상호관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언급들은 모든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사실과 현상이 이름이 있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존재와 형상에 윤곽과 질서를 부여받는다라는 우주의 이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존재들에 형상, 윤곽, 질서를 부여하는 이름의 작용은 땅이름, 즉 地名(place name)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지명은 자연과 사회적 주체를 재현하는 수많은 이름들을 공간 위에 생성시키는 작용을 하여 왔다. 지명은 공간의 존재와 형상에 구체적인 경계와 영역, 그리고 의미를 부과하면서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차이와 관계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작용을 하고 있다. 지명의 최우선적인 기능은 일정한 대상에 공간적 형상과 윤곽을 부여하여 이것을 다른 것과 구별하여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명의 기능은 지명의 지리학적 연구가 성립하는 기본적이고 충분한 조건이 되며, 이러한 연구에서 지명은 언어적,

문화적, 지리적 현상을 내포하고 있는 종합적인 현상으로 간주된다.

한반도는 수천 년의 오랜 역사로부터 유래하는 다양한 시간적 스펙트럼과 횡단면을 지니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조우하고 때로는 충돌까지 하는 완충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는 정치-사회적 격변과 문화 변동이 끊임 없이 발생하였으며 상이한 사회 주체들이 상호 갈등하고 경합하는 권력 관계(power relations)가 양산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언어생활의 경우, 조선시대 사람들은 우리말을 구어(口語)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사회적 신분의 차별에 따라 한문(漢文), 이두(吏讀), 한글을 문어(文語)로 사용하였다. 사대부(士大夫) 또는 사족(士族)은 구어로 우리말을 사용하였지만 문어로 한문을 사용하는 이중적인 언어생활을 하였고, 중인 서리(鄉吏) 계층은 문어로 이두를 사용하였지만 부녀자와 하층민은 한글(諺文)을 문어로 사용하는 사회적 관습이 있었다(남풍현, 1996, 30-31). 이러한 사회적 신분의 차별에 따른 언어생활의 분열은 한국 지명에 일정한 권력 관계로 작용하여 복수 지명이 대립하며 공존하는 이른바 경합 지명(contesting place name)이 발달하는 배경이 되어 왔다.

이와 같은 한국 지명의 경합적 성격은 상이한 사회적 주체들이 문화의 의미를 둘러싸고 벌이는 문화 전쟁(cultural wars)을 연구하는 문화정치학(cultural politics) 분야에 적합한 연구 주제로 주목된다. 문화정치학은 1990년대 이후 신문화지리학(new cultural geography)이 실천해 오고 있는 언어적(linguistic), 문화적(cultural), 공간적(spatial) 전환(turn)에 하나의 주요 전선(battle front)을 형성하고 있는 분야이다.<sup>2)</sup> 한반도의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실천해온 문화적 다양

성과 언어생활의 이중성은 지명을 통한 아이덴티티(identity)와 이데올로기(ideology)의 재현(representation)에 영향을 주어 왔다. 상이한 사회적 주체들은 지명을 매개로 하는 권력 관계, 즉 지배(dominance)와 저항(resistance), 포함(inclusion)과 배제(exclusion), 타협(negotiation)과 경합(contestation)의 관계에 불가피하게 연루되어 왔다. 그 결과 한국의 지명은 관념, 가치, 상징은 물론 일상생활의 실천(the practices of ordinary life)에 의해 권력 관계가 부과, 수용, 경합, 거부되는 과정을 거쳐 변동하여 왔으므로 문화정치학에 적합한 연구 대상으로 평가된다(Schiller, 1997, 2).

따라서 한국의 지명을 효과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우어 학파의(Sauerian) (전통적) 문화지리학이 수행해온 형태학적인 지명 연구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한편 지명 변동의 사회적 맥락과 과정(social context and process)을 공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특히,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한국의 지명을 둘러싸고 벌이는 문화 전쟁(culture wars)<sup>3)</sup>을 사회적인 권력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면, '인간 주체'와 '공간과 언어'라는 양극적 요소들과 이러한 양극적 요소들을 중재하는 '차이와 관계'라는 중간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sup>4)</sup> 그리고 한국 지명에 대한 문화정치학적 연구의 당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그동안 포스트모던 인문지리학에서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온 장소 아이덴티티(place identity), 영역 경합(territorial contestation), 스케일 정치(politics of scale)라는 개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지명은 자연과 사회적 주체를 지칭하고 재현하여 장소 아이덴티티의 재현과 구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역사적 내용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 가치 평가를 근거로 지명을 이데올로기적 기호로 만들거나 지명의 구성력과 원심력을 이용하여 권력 관계를 지명의 영역에 실천하여 왔다. 사회적 주체의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가 지명에 투영되는 과정은 장소 아이덴티티가 구성되는 과정이기도 하며, 이러한 과정에는 반드시 포함과 배제라는 권력 관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과정은 결과적으로 공간

의 형상화를 동반하므로, 지명 영역의 형성과 경합은 물론 지명 스케일의 변동을 설명하고 해석하기 위한 이론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장소 아이덴티티, 이데올로기적 기호, 영역과 경계, 스케일 정치라는 개념을 기초로 하여 한국 지명을 문화정치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이론 구축을 시도하였다.

## 2.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의 재현

### 1) 지명의 문화정치적 의의와 기능

지명의 주된 기능은 인간이 거주하는 장소의 자연(nature) 환경, 생물적 요소로서의 인간 주체(human subject), 주체가 대상화 하는 타자(Other)라는 존재들의 '있음(being)'과 '거기 있음(dasein)'을 언어로 지칭하는 것이다. 일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지명의 기능은 지명의 유연성(有緣性)<sup>5)</sup>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일정한 경계와 영역을 갖는 공간적 형상화를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이러한 공간적 형상화는 혼돈(chaos)의 상태에 있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존재에 대해 구체적인 윤곽과 질서(cosmos)를 제공하며, 존재의 '있음'을 언어적이고 시각적이며 물리적으로 확증해 준다.

한편 공간이 가지고 있는 구체성과 물리성은 지명이라는 언어적 요소를 통해 인간 주체의 존재를 재현하는 매개 내지 수단으로 이용된다. 인간 주체를 포함하는 드넓은 공간과 이러한 공간 내부의 복잡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 효과적으로 지칭하는 방법은 나의 이름에 공간을 부착시키는 것이다. 사회적 주체(subject)의 이름에 공간의 이름인 지명을 덧붙임으로써 자아(self)와 관계 맺고 있는 위치와 영역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자아의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를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재현한다. 일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지명의 기능은 단순히 대상을 지칭하려는 목적을 넘어 특정한 사회적 주체의 아이덴티티, 이데올로기, 권력 관계를 재현하려는 목적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지명은 자연, 주체, 타자의 존재를 지칭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특정한 주체와 집단의 특질을 재현하기도 한다. 특정한 주체가 “이름(name)을 얻으면 형상(shape)을 얻게 된다”는 張載(2002, 31)의 사유는 특정한 주체가 형상을 부여받는 단계에서 공간의 물리성을 필요로 한다는 조건을 전제하고 있다. 하나의 주체가 이름을 얻고 형상을 얻어 존재로서 출현하는 과정을 현실에 실천하려면 위치와 영역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공간의 명칭으로서의 지명은 주체의 이름 주변에 부착되어 주체의 출신지, 거주지, 활동 영역에 관한 정보를 타자에게 제공해 준다. 그리고 이러한 지명은 때때로 사회적 주체의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를 대변해 주는 의미를 지니는 특정한 문자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인의 성씨(姓氏) 앞에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본관(本貫)(貫鄕)의 명칭이 다름 아닌 지명이 고[‘남양(南陽) 洪氏, ‘경주(慶州) 李氏],<sup>6)</sup> 출가한 남성과 여성의 호칭으로 쓰이는 택호(宅號)의 상당수도 지명을 사용한다[‘안성(安城) 택, ‘봉화(奉化) 택]. 또한 조선시대 통용되던 사람의 아호(雅號)에도 흔히 지명이 사용되었다[‘퇴계(退溪) 이황, ‘울곡(栗谷) 이이, ‘사계(沙溪) 김장생]. 이와 같이 주체의 이름에 공간적 정보인 지명을 붙이는 사례는 이슬람교도, 즉 무슬림들(muslims)의 경우에도 흔히 발견되는데,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출신지를 강조하기 위해 출신지의 지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대응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姓氏가 확립되기 이전 고대인들은 이름 앞에 출신지(出自)를 붙여 특정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음을 표시하기도 하였다(김종택, 2004, 34).

이와는 달리, 군현의 명칭이나 본관 또는 성씨의 명칭을 지명의 전부(前部) 요소로 사용하여 사회적 주체의 아이덴티티를 간접적으로 재현하고 거주지의 영역과 경계를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김촌(金村), 송촌(宋村), 이(李)뜸, 김씨동(金氏洞), 차가동(車哥洞), 진주강촌(晉州姜村), 태인허촌(泰仁許村), 송산소리(宋山所里), 한산소리(韓山所里) 등과 같이 본관(本貫)과 성씨(姓氏)의 명칭을 붙여 지명으로 명명하거나(이영택, 1986, 109-114), 공주말, 부여두리, 노성편, 석성말, 연산뜸, 은진뜸 등과 같이 군현 명칭이라

는 고유 명사를 접두사로 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이러한 경우들은 주체의 이름 앞에 지명을 부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체와 관련된 공간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체의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주체의 현존성을 입증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와 같이 공간을 수단으로 하여 주체의 존재를 표상하는 지명의 기능은 언어 요소이자 공간 요소로 존재하는 지명의 내재적인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명은 때때로 주체의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를 재현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지배적인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의 구축과 전파에 기여한다.<sup>7)</sup>

## 2) 지명의 아이덴티티 재현과 이데올로기적 기호화

### (1) 지명의 아이덴티티 재현

지명은 사회적 관계와 의미 생산 체계의 물리적(그리고 지리적 또는 공간적) 표현물인 동시에 사회적(이데올로기적) 구성물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sup>8)</sup> 지명을 사회적 구성물로 바라보려면, 지명을 사회 내부 구조에 작용하는 관계적 요소로 가정하고 그것이 재현하는 의미가 생산되고 경합되는 사회적 상황(context)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적 주체의 아이덴티티 구축에 기여하는 지명의 인위적 형성과 변형에는 문화정치적 과정이 개입되어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언제나 특정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지명이 사회적 구성을 통해 특정한 주체의 아이덴티티를 재현하는 과정은 반드시 순차적이지는 않지만 상호 관련되는 지명의 명명과 인식이라는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개별적인 사회적 주체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처음부터 지명의 명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타자에 의해 명명된 지명의 인식에 주관적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지명의 명명과 이에 대한 인식은 궁극적으로 크고 작은 사회적 주체의 이데올로기와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지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geographical scale)에서 작용하고 있는 상이한 사회적 주체들의 사회적 관계, 즉 권력 관계의 본질을 규명해야 한다.<sup>9)</sup>

사회적 주체(social subject)의 아이덴티티를 재현하

는 지명의 명명은 내부적 아이덴티티 과정과 외부적 아이덴티티 과정을 거쳐 실현된다. 내부적 과정은 안게른의 아이덴티티 개념에 근거하는 반면, 외부적 과정은 카스텔스의 아이덴티티 개념에 근거한다. 독일 철학자 에밀 안게른(Emil Angehrn)은 아이덴티티가 주체 내부의 발전 단계에 따라 개별성(individuality), 성질(quality), 같음(동일성: identity)의 논리적 의미를 지니며, 이들은 제각기 수적(數的) 아이덴티티(numerical identity), 질적(質的) 아이덴티티(qualitative identity), 자아(自我)-아이덴티티(I-identity)에 대응된다고 주장하였다(Angehrn, 1985, 235; 이현재, 2005, 265에서 재인용). 아울러 임마누엘 카스텔스(Manuel Castells)는 외부를 지향하는 사회적 주체의 아이덴티티 유형을 지배와 저항의 관계에 따라 정당화하는 아이덴티티(legitimizing identity), 저항 아이덴티티(resistance identity), 기획 아이덴티티(project identity)로 분류하였다(Castells, 1997, 6-10; 임병조·류제현, 2007, 588에서 재인용).

우선 안게른의 주장에 의하면, 수적 아이덴티티는 특정한 개인의 개별성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며, 지식적 요소인 '이것'으로 규정되는 단수적 주어나 이름과 같은 고유 명사를 통해 물질적 개별성을 확인하는 특성이 있다. 수적 아이덴티티를 재현하는 지명은 하나의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별하여 지칭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명을 명명하는 주체가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의 수적 개별성과 (방위를 포함하는) 자연지리적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명명한 지명들이다(가는골, 긴골, 막은골, 양지말, 음지말, 동촌, 서촌, 안골, 바깥골). 다음으로, 질적 아이덴티티는 개별성이나 차이보다는 내부적 단일성(unity)이나 '같음(동일성)'을 기준으로 던지는 "그는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 그는 어떤 집단에 속하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아이덴티티이다. 개인에 의한 역할의 수행과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질적 아이덴티티는 필연적으로 개인이 지향하고 소속되는 가치 체계와 공동체의 특성을 대변한다. 이러한 단계의 아이덴티티를 재현하는 지명은 조선시대의 유교적 지명과 같이 대체로 특정한 사회적 주체가 자신의 가치 체계와 이데올로기를 표상하고자 할 때 명명된다. 예

를 들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의 인의리(仁義里), 예지리(禮智里), 신리(信里), 경북 김천시 아포면과 구미시 선산읍에 걸쳐 있는 인리(仁里), 의리(義里), 지리(智里), 예리(禮里), 습례리(習禮里), 평북 평원군 한천면의 인의동(仁義洞), 예지동(禮智洞), 신의리(信義里)는 성리학적 주체라는 질적 아이덴티티를 재현하는 지명이다. 끝으로, 자아-아이덴티티는 질적 아이덴티티의 다양성과 가변성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의 동일한 것으로 통합하는 아이덴티티이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면서 한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 기업인인면서 불교신자이기도 하며, 혹은 공주 사람이자 충청도 사람,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다양한 질적 아이덴티티들이 동일한 자아로 통합되어 정당화되는 것이 자아-아이덴티티이다. 이와 같은 자아-아이덴티티를 재현하려는 목적으로 명명하거나 사용하는 대표적인 지명으로는 충청도, 한국, 동아시아와 같은 지명들이 있다.

이에 비해, 카스텔스는 전술한 바와 같이 아이덴티티가 주체 외부에 작용하는 과정, 즉 외부적 아이덴티티 과정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정당화하는 아이덴티티는 사회제도를 통하여 다른 사회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대하여 자신의 우월성을 강화하고 합리화하려고 구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저항 아이덴티티는 타자가 우월성의 논리를 펴며 압박하거나 평가 절하하는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일정한 사회 제도에 순응하거나 복종하기 보다는 오히려 반대하거나 위반하는 방향으로 저항하며 생존하는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아이덴티티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화하는 아이덴티티와 저항 아이덴티티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주체 간의 갈등과 경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소재의 미호(溪湖)와 벌말은 지금까지 상호 대립적인 사회적 주체들에 의해 경합 관계를 지녔던 지명들이다. 여기에서 미호(溪湖)는 사족(士族)이라는 지배적 주체를 대변하는 반면, 벌말은 이러한 지명에 저항하는 평민(平民)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지명인 것이다.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미호(溪湖)는 정당화하는 아이덴티티를 재현하고 있는 반면, 단순히 주변의 생산 환경과 지형을 묘사하고 있는

별말은 저항 아이덴티티를 재현하는 지명인 것이다. 끝으로, 기획 아이덴티티는 어느 정도 유리한 사회 문화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회적 주체들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것이다. 기획 아이덴티티를 재현하려는 목적으로 지명을 명명한 사례로는 대전시 동구 상소동이 대표적이다. 조선시대 지배적 사족인 은진 송씨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종족촌의 명칭을 하소동(下所洞)으로부터 상소동(上所洞)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경은 성리학이라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작용하는 사회에서 높이 평가되는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과시하고 강화하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고 추정된다(김순배, 2004, 69-79).

특정한 사회적 주체의 아이덴티티를 재현하는 지명을 외부자의 입장에서 인식하는 사회적 주체들은 불가피하게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지명을 평가한다. 이들은 이른바 타자를 자아와 비교하여 보는 동일시(同一視)라는 과정이나 지명의 함축적 의미를 해독하는 '디코딩(decoding)'이라는 과정을 경험한다. 프랑스 알튀세르 학파의 언어학자인 미셸 페쇠(Michel Pécheux)는 동일시라는 과정을 보편적 주체(神), 국가, 민족, 언어와 지명<sup>10)</sup>에 대하여 사회적 주체가 가지는 관계를 기준으로 동일시(同一視), 역동일시(逆同一視), 비동일시(非同一致)로 세분하였다. 영국의 문화 연구를 대표하는 학자인 스투어트 홀(Stuart Hall)은 디코딩 과정을 실천하는 위치를 지배적-헤게모니적 위치(dominant-hegemonic position), 타협적 위치(negotiated position), 대항적 위치(oppositional position)로 분류하였다.<sup>11)</sup> 그런데 이들 양자의 이론은 지명의 연구를 전제로 상호 비교하여 보면 구체적으로 상호 대응되는 개념들이 발견된다. 페쇠의 동일시, 역동일시, 비동일시는 각각 홀의 지배적-헤게모니적 위치, 타협적 위치, 대항적 위치와 일대일로 호응된다.

첫 번째 유형의 동일시, 즉 동일시(identification)는 특정한 주체가 보편적 주체를 '좋은' 주체로 평가하고 자신과 같음(sameness)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특정한 주체는 보편적 주체가 생산하는 의미를 자명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지배적-헤게모니

적 위치를 견지한다. 이러한 유형의 동일시에 의한 지명 인식은 자신들의 외부에 존재하는 일정한 지명을 특정한 사회적 주체들이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재현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긍정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 유형의 동일시, 즉 역동일시(counter-identification)는 특정한 주체가 보편적 주체를 '나쁜' 주체로 규정하여 불편해 하거나 꺼려하며, 자신과의 다름(difference)을 지향하면서도 한편으로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이다. 이러한 역동일시 과정은 타협적 위치로부터 출발하며 보편적 주체는 물론 특정한 주체의 아이덴티티를 부분적으로 강화하거나 변형할 따름이다. 세 번째 유형의 동일시, 즉 비동일시(disidentification)는 세계 체제의 지배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변혁적 주체를 형성하여 새로운 구조를 생산하려는 목적으로 보편적 주체의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비동일시는 보편적 주체와 전혀 다른 대항적 위치로부터 지배적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대체하는 대안적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려고 노력한다. 특정한 주체가 자신의 외부로부터 부여된 일정한 지명을 역동일시나 비동일시하는 과정이 확인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지텃골(연기군 남면 갈운리)과 적곡면(赤谷面)(충남 청양군)이 있다. 전자는 남성 성기를 지칭하는 우리말, 즉 '자지'를 연상시키면서 일부의 지명 언중들이 공식적으로 부르는 것을 꺼리는 지명이다. 후자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지명 언중들에 의해 그 의미가 '빨갱이 굴', 즉 인민군의 은신처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결국은 1987년 장평면(長坪面)이라는 지명으로 변경되었다(임동권 외 편, 2005, 141).

## (2) 지명의 이데올로기적 기호화

러시아의 맑스주의 언어철학자인 볼로쉬노프(Valentin Nikolaevich Voloshinov)와 바흐친(Mikhail Mikhailovich Bakhtin)은 언어를 순수한 언어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및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Baldwin *et al.*, 2004, 62). 그의 주장은 언어(기호)가 사회 내부에서 이데올로기를 매개로 하는 계급의 투쟁과 실천이 진행되는 장소라고 하는 이른바 이데올로기적 기호 이론으로 압축된다(Bakhtin, 1992, 204-205;

Edgar and Sedgwick, 2002; 박명진 외, 2003, 112에서 재인용). 특히 볼로쉬노프(1973)가 제안한 이데올로기적 기호(ideological sign)와 기호의 다액센트성(multiaccentuality)이라는 개념은 언어적 기호로서의 지명을 이데올로기적이고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관점을 제공한다.

특정한 지명은 사회적 주체에 의해 사회적 액센트나 이데올로기적인 가치 평가를 받으면 비로소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이데올로기적 기호가 된다. 지명의 이데올로기적 기호화는 사회적 액센트가 부여되는 과정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특정한 지명이 사회적 주체에 의해 일정한 사회적 가치를 획득하는 과정은 그것이 사회적 주체의 사회적 시야에서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토대에 적합한 사회적 액센트로 평가받는 과정이다.<sup>12)</sup> 특정한 지명이 일정한 사회적 주체의 사회적 시야에 들어가려면, 그것이 사회적 주체의 존립에 반드시 필요한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조건의 하나로 평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상이한 주체들은 보통 동일한 지명에 대하여 상호 대립적인 복수적 액센트(multiaccent)를 부여하므로 지명의 의미를 둘러싼 투쟁과 경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지명은 이데올로기적 기호로 작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이데올로기를 매개로 하는 계급투쟁의 전장(battlefield) 또는 영역(영토)(territory)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볼로쉬노프가 제안하는 이데올로기적 기호와 기호의 다액센트성이라는 개념은 폐쇄적 언급한 담론의 의미 생산과 주체 형성이라는 개념과 상당히 유사하다. 폐쇄의 견해에 의하면, 하나의 단어가 특정한 사회적 주체의 담론 과정에 들어가면 사회적 주체의 담론 내부에서 통용되는 다른 단어들과 일정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며 의미가 파생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견해는 전국적으로 다수 분포하는 ‘무쇠골’이라는 지명의 복수적 의미가 파생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적용된다. ‘무쇠골’이라는 지명은 상호 대립적인 특정한 사회적 주체들[대장장이/유학자(儒學者) 또는 사족(士族)]의 담론 과정에 들어간 다음 특정한 주체의 담론 내부에서 통용되는 다른 이데올로기적 단어들[예: 쇠, 낫, 쟁기, 합금, 철광석, 담금질, 노동/성리학(性理學),

한학(漢學), 인(仁), 경(敬), 수기(修己), 주일무적(主一無適)]과 일정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무쇠골’은 서로 전혀 다른 의미의 지명, 즉 무쇠가 풍부하게 생산되는 ‘무쇠골’/근심 없이 편안한 ‘무수동(無愁洞)’을 생산하였을 것이다.<sup>13)</sup>

특히 한국은 과거의 오랜 역사 시기 동안 고유한 문자를 보유하지 못한 채 중국의 한자와 사상을 빌려왔으므로, 사회적 주체들에 의해 지명의 이데올로기적 기호화나 다액센트성이 실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였다. 예컨대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에는 전국에 산재하는 유명 산천에 불교를 상징하는 한자 지명이 활발하게 부여되었다(류제현, 2002, 133). 조선 시대에는 유교, 특히 성리학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수많은 한자 지명이 새로이 출현하고, 심지어는 기존의 불교 지명을 대체하거나 변형을 시키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고려 태조 23년(940) 비풍(比豊)을 대체한 회덕(懷德)이란 군현 지명은 유교 경전인 『論語(里仁篇)』의 “子曰君子懷德 小人懷土 君子懷刑 小人懷惠”라는 문구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홍성군(洪城郡) 홍북면(洪北面)의 논골이라는 촌락 지명은 조선 후기 우암 송시열의 주도로 공자(孔子)의 고향을 상징하는 노은리(魯恩里)로 개칭되었다.<sup>14)</sup> 또한 오늘날 논산시의 노성면이란 지명의 기원은 조선 후기 송시열의 주도로 니산현(尼山縣)을 공자의 고향을 상징하는 노성현(魯城縣)으로 대체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서는 과거 서인(西人) 노론계의 주요 사족들이 경호강에 주자(朱子)의 관향인 신안(新安)과 관련된 신안강(新安江)이라는 속칭을 붙이고, 이러한 신안강 맞은편 압벽에 소동파(蘇東坡)의 「赤壁賦」에 등장하는 적벽(赤壁)이라는 지명을 부여하였다(시승중, 2000, 42-64).

### 3) 지명을 통한 장소 아이덴티티의 구축

#### (1) 장소 아이덴티티와 권력 관계의 개념

문화 연구(cultural studies)의 중심적인 주제가 되고 있는 아이덴티티라는 개념은 과거에 통상적으로 정의되었던 개념과는 선명하게 구별된다. 문화 연구에서는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자아(self)나 주체(subject)가 모든 외부적인 영향으로부터 독립적, 자율적, 안정적인 존재라는 과거의 전통적인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화 연구는 아이덴티티가 자아의 바깥에 존재하는 자아와 다른 사람들, 즉 타자(Other)에 대한 반응으로 형성된다는 입장을 취한다(Edgar and Sedgwick, 2002; 박명진 외, 2003, 378). 신문화지리학은 문화 연구로부터 영향을 받아 아이덴티티가 개인적인 수준에서 단수로 형성되기보다는 오히려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이 전개되는 다자적(多者的)인 수준에서 복수로 형성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복수적이고 다자적인 아이덴티티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려면, 우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로 부터 자기 자신을 어떻게 구별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질문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정한 장소를 인지하여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어떻게 이러한 장소가 다른 장소와 다른 동일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누구이다”라는 긍정적 정의의 이면에는 “어떤 사람은 누가 아니다”라는 부정적 정의를 기필코 동반한다. 따라서 아이덴티티의 형성 과정에는 언제나 포함(inclusion)과 배제(exclusion)라는 상반되는 사고와 행동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수준은 물론 집단적인 수준에서 특정한 주체의 아이덴티티가 형성되는 과정은 “자아와 다른 것이 타자이고, 타자와 다른 것이 자아이며, 자아와 다르지 않은 것이 자아이고, 타자와 다르지 않은 것이 타자이다”라는 방식으로 판단을 연속적으로 거친다. 이러한 과정은 같은 것(동일성: sameness)과 다른 것(차이성: difference)을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로 보며 긍정과 부정을 함께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차이를 판단하고 때로는 정당화까지 하는 과정에는, 일정한 사회적 관계에 특정한 인물이나 집단을 포함하거나 배제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특정한 인물이나 집단에 대한 가치 평가를 결정하는 권력 관계가 개입되어 있다(Baldwin *et al.*, 2004, 139). 이러한 권력 관계의 실체는 아이덴티티의 복수화와 아이덴티티의 게임 혹은 정치(identity game or politics)라는 형태로 전개된다. 그리하여 권력 관계는

다양하고 복수적인 정치적 주체와 집단들의 아이덴티티들이 서로 경합(競合: contestation)되고 절합(節合: articulation)되는 실제적인 정치 현장에서 헤게모니(hegemony)의 장악에 활용되기도 한다(Hall, 1992; 김수진, 2000, 328-329에서 재인용).

오늘날에는 아이덴티티의 재현에 대한 권력 관계의 개입이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은, 문화 전쟁은 곧 문화 아이덴티티(cultural identity)를 대상으로 하는 투쟁이라는 주장을 가능하게 한다. 만일 이러한 주장을 수용한다면, 문화 전쟁을 이해하기 위하여 특정한 주체의 아이덴티티를 재현하는 공간과 장소에 형상을 부여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권력 관계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다른 아닌 특정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려는 선택적, 인위적, 조작적인 권력 관계의 실체와 배후를 규명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권력 관계는 일정한 장소 안에서 맺어지므로, 장소는 인간 집단의 아이덴티티가 형성되는 과정에 반드시 개입되어 있는 요소이다(류제현, 1999, 182). 더구나 일정한 권력 관계 속에서 문화적 아이덴티티의 구축을 둘러싼 논쟁은 결과적으로 특정한 장소를 점유하고 있는 경관 형태를 통하여 표상되기도 한다.

실제로, 장소는 개인적인 사회생활이 교차하는 지점들의 집합이자 개인들의 동일시 양상이 전개되는 존재론적 장(場)이므로 집단적인 아이덴티티의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보다 더 비유적인 표현으로, 장소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사회적 주체로서 성립하는 기반인 동시에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아이덴티티가 연출되는 무대이다. 매시(Massey)의 정의에 의하면, 이러한 장소는 한편으로 사회적 관계가 맺어지는 특수한 지점들이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특수한 지점들에서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 그 자체가 된다(Massey, 1995, 57-61).<sup>15)</sup> 문화 전쟁의 시각에서 보면, 장소는 다양하고 복수적인 아이덴티티가 역동적으로 생성되고 변형되며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각축전을 벌이는 전투 공간(battle field)이다. 로즈(Rose)의 주장에 의하면, 특정한 장소가 이에 대한 (인간의) 경험과 느낌(sense of place: genius loci)을 거쳐 특정한 (인간의) 아이덴티티로 발전하면 이른바 장소-근거의 아이덴티티



티(place-bound identity)가 된다(Rose, 1995, 88-89). 그리고 만일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의 권력 관계가 이러한 장소와 관련을 맺으며 형성되면, 장소-근거의 아이덴티티는 비로소 문자 그대로 장소 아이덴티티(place identity)가 된다(Rose, 1995, 88-89). 이와 같이 장소 아이덴티티는 사회적 행위의 주체가 장소와 맺고 있는 관계들을 근거로 형성되므로 어떤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통해 그가 누구인가를 알려 주는 기능을 한다(Crang, 1998, 102-103).

## (2) 지명과 장소 아이덴티티의 관계

최근 문화 이론가와 인문지리학자들에 의한 일련의 논의에서 개인적 또는 집단적 주체와 장소의 상호 관계는 물론 장소 아이덴티티의 구축이라는 주제가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장소 아이덴티티의 양대 구성 요소인 장소와 주체(자아)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주체(자아)=장소'라는 학문적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전중환, 1999, 173). 이러한 인식에 의하면, 개인 내지 집단과 장소의 경계, 장소와 장소 아이덴티티의 경계, 개인이나 집단과 장소 아이덴티티의 경계가 모두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체(자아)가 곧 장소이고, 장소가 곧 장소 아이덴티티이며, 주체(자아)가 곧 장소 아이덴티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명이라는 현상은 이와 같이 특별한 삼각관계가 어느 정도 사실인가를 확인하기에 비교적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의 지명은 오랫동안 이들 삼자(주체, 장소, 장소 아이덴티티)의 상호 경계를 허물며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다. 한국의 지명이 (주체의) 아이덴티티와 장소를 어떻게 매개해 왔는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우선적으로 장소 아이덴티티의 구축에 대한 지명의 기여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는 역사상 다양한 문화 전쟁의 전장(battle ground)을 경험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명이 장소 아이덴티티의 구축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장소 아이덴티티와 지명의 상호 작용이 활발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 전쟁의 다양성에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언어생활의 이중성에서 기

인한 것이다. 이러한 언어생활의 이중성은 곧 구어(口語)는 우리말을 사용하지만 문어(文語)는 한문을 사용하는 이중성이고, 지배층은 한자에 의한 지명 표기를 선호하지만 피지배층은 우리말과 한글에 의한 지명 명명을 선호하는 이중성을 말한다. 일제강점기까지 통치 세력은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공식적인 지명을 표기할 때 원칙적으로 한글 대신 한자를 사용하는 관행을 고수해 왔다. 심지어는 조선시대 세종에 의해 고유한 문자인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도 지배층은 각종 지리적 단위의 지명 표기에 한글보다는 한자를 노골적으로 선호하였다. 조선 후기 전국 각지의 사족 집단들은 국가(national)와 지역(regional) 단위의 지명으로부터 촌락 수준의 국지적(local) 단위에 이르기까지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를 표상하는 한자 지명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이에 반해, 한자나 한문을 모르는 여성들을 포함하는 일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전해 내려오는 관습에 따라 지명을 한자라는 문어(文語)가 아닌 우리말이라는 구어(口語)로 호칭하였던 것이다.

지명을 통해 장소 아이덴티티가 구축되고 강화된 사례로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성씨를 지명 전부 요소로 하는 촌락 명칭(예: 김촌, 송촌 등)과 군현 명칭이라는 고유명사를 접두사로 하는 촌락 명칭(예: 공주말, 노성편 등)이 있다. 이러한 지명들은 특정한 사회적 주체가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영역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는데 기여하는 것들이다. 또한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古堂里) 안단평에는 중국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의 은인(隱人) 엄자릉(嚴子陵)이 살던 절강성(浙江省) 동려현(桐廬縣)의 지명들(富春山, 子陵臺, 七里灘)이 촌락 내부와 주변에 부여되어 지칭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엄자릉과 그에 관한 고사(故事)를 자신들과 동일시(identification)하는 고당리의 특정한 사회적 주체들에 의해 장소 아이덴티티가 구축된 사례이다. 또한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의 집중적인 거주지였던 공주면, 대전면, 조치원면, 강경면, 논산면과 같은 전국의 지정면(指定面), 읍(邑), 부(府) 일원에는 일본식 지명들(예: 本町, 春日町, 旭町, 榮町, 大正町, 大和町 등)이 부여되고 지칭되었다. 이러한 일본식 지명의 상당수는 일본인의 아이덴티티와 영역을 상징하는 것으로 타자(조선인)와 차별되는 일본인을 위한 장소 아이덴티티

의 구축에 기여하였을 것이다.<sup>16)</sup>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한국 지명에 내재된 다중성(多重性)을 이해하려면, 한자를 차자(借字)하여 우리말로 발음하는 상황과 고유 지명을 한자 지명으로 표기하고 이를 그대로 발음하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의 지명 언중이 특정한 지명의 표기문자나 의미를 동일시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을 역(비)동일시하거나 타자화(Othering)하는 것은 한국 지명이 가지는 다중성의 직접적인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때때로 특정한 사회적 집단의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를 지명에 투영하려는 은폐된 권력 관계가 개입되는데, 이러한 권력 관계의 개입은 실제로 지명을 통한 장소 아이덴티티의 구축과 영역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도 지명을 통한 장소 아이덴티티의 구축과 문화전쟁의 사례는 전국 각지에서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대규모 토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개발 주체들이 특정한 지명의 명명을 둘러싸고 경합하고, 지역 개발 과정에서 지방 정부와 지역 주민들이 특정한 지명의 사용을 두고 논쟁하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의 수단으로 독도(獨島)에 대한 명칭[일본의 경우: 竹島(다케시마)]의 국제적 공인을 위하여 경쟁하는 사례들은 지명 연구가 역사적이든 현재적이든 문화정치학적 분석을 요구한다는 주장을 입증하고 있다.

### 3. 영역 경합과 스케일 정치

지명을 통한 아이덴티티의 재현과 구축 과정은 단순히 개인적이고 내부적 수준을 넘어 타자에게 영향력을 확대하는 사회적 관계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에 관여하는 사회적이고 외부적인 수준까지 고려해야 한다. 특정한 사회적 주체의 아이덴티티가 자아-스케일(I-scale)을 넘어 재현되고 구축되는 과정에는 다양한 스케일에 처해 있는 타자에 대한 억압과 배제는 물론 이를 위한 권력 기제가 개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사물과 사실, 현상, 관계를

분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아이덴티티의 구축 과정을 연구할 때에도 스케일-연쇄(scale-linkage)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고려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또한 주체성(subjectivity)과는 달리 아이덴티티는 자신을 의식화하고 자신의 모습을 겉으로 나타내기 위해 반드시 공간과 장소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경계(boundary)나 영역(territory)과 같은 형상은 아이덴티티를 물질적으로 재현하는 지명의 문화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공간적 통로이자 산물이 된다.

지명을 매개로 하는 동일시 과정과 아이덴티티의 구축 과정은 궁극적으로 타자와 구별되는 자아의 동일시와 이에 따른 아이덴티티를 강화한다. 지명은 포함과 배제라는 표면적으로는 상반적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동반적인 과정을 거치는 동안, 타자를 배제하는 경계와 자아를 포함하는 영역을 동시에 물리적으로 구축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sup>17)</sup> 또한 너와 나, 그들과 우리들을 구별하는 아이덴티티가 강조되면 필수록 자아와 타자의 차이는 더욱 선명해지며, 이러한 차이에 근거하여 내부적 동일성을 인식하는 장소감(sense of place)에 기초하는 장소 아이덴티티가 구축된다. 그런데 이러한 장소 아이덴티티의 구축 과정은 곧 국지적인 스케일에서 지구적인 스케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적 규모에서 실행되는 포함과 배제의 과정이므로 영역(영토)과 스케일을 다각적으로 연결하는 사고가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국가적 스케일의 연구에 머물던 정치지리학의 영역(영토) 개념을 문화정치학에 확대 적용하여 아이덴티티와 권력 관계의 결합에 따른 지명의 경계와 영역(영토)의 수축과 팽창을 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 1) 지명 영역의 형성과 권력 관계

##### (1)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는 지명

하나의 지명은 인간 주체에 의한 가치 평가를 거쳐 수용되거나 거부되며, 이러한 평가의 과정에는 '좋고 나쁨'의 기준을 결정하는 권력 관계가 개입되게 마련이다. 흔히 이러한 기준은 인간 주체의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가 되는데, 인간 주체는 이를 근거로 지명을 평가할 때 자기와 같은 것은 포함하고 자기와 다른

것은 배제하며 나와 너 또는 우리들과 그들을 구별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 주체는 자기와 같다고 평가되는 지명을 타자에게 강요하는 동일성(identity)의 논리로 타자를 지배하거나 억압하기도 한다. 이러한 동일성 논리에 의한 지배와 억압에 대해 피지배자로서의 타자는 경우와 상황에 따라 특정한 지명에 저항(resistance)을 하기도 하고, 동의(consent)나 협상(negotiation)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평가와 이에 대한 반응 과정에서 특정한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를 재현하는 지명은 지배적인 위치에 정착한다. 지배적인 지명이 지칭하는 범위, 즉 지명의 영역(영토)은 우리들을 포함하고 그들을 배제하는 물리적 수단이 되어 더욱 구체적으로 외부 경계가 구획되기도 한다. 특정한 지명은 사회적 주체의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용기(container)로 이용될 때에야 비로소 특정한 주체의 손과 발이 되어 주체의 특성과 영역을 확정하고 확장하는 매개로 작용하는 것이다. 우리들과 그들을 확연히 구별하는 하나의 지명은 특정한 사회적 주체의 권력이 실천되는 매개이자 수단으로 이용되는 동안 다양한 스케일로 자기 고유의 영역(영토)을 구축하며 다른 지명의 영역(영토)과 결합하는 것이다.

## (2) 권력의 장(場)으로서의 지명 영역

특정한 주체와 집단이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는 포함과 배제의 행위는 곧 바로 권력(power)이 작용하는 과정 그 자체이다. 특히 이름을 붙이는 행위(naming)는 권력 그 자체로, 무언가를 실재하게 하는 창조적인 힘(power)이며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화하는 힘이다. 또한 특정한 장소가 고유한 명칭을 부여받은 다음 아이덴티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언어의 힘이다. 그리하여 지명에 대한 권력의 실천이란 특정한 사회적 주체가 동일시하는 지명이 자신의 영역을 정화(淨化)하고 확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특정한 사회적 주체가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를 재현하는 지명의 표기 방식으로 다른 지명들을 개명하거나 수정하려는 시도는 동일성에 의한 지배와 억압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정한 지명의 영역은 특정한 사회적 주체의 권력이 자기장(磁氣場)처럼 힘을 발휘하

는 공간적 범위와도 같은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바흐찐이 언급한 언어의 구심력(求心力)과 원심력(遠心力)은 언어,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지명을 통한 권력의 실천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준다(조주관, 2002, 355). 바흐찐의 이론을 지명에 적용해 보면 지명을 둘러싼 권력의 실천에 두 가지 상반되고 대립적인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지명의 구심력(centripetal force of place name)은 모든 것을 동질화하고 한 곳으로 집속화하는 힘으로서 단일한 지명(형식과 의미)을 구성하려는 목표를 지향한다. 이때 단일한 지명이란 현실적인 지명의 다양성과 대립하지만 이러한 다양성을 제한하고 통일성을 강조하는 표준적인 지명 표기 방식을 대표한다. 지명의 구심력을 선호하는 지배 계층은, 자신의 기득권과 현상 유지를 위해 무엇보다도 단일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며 지명을 획일화하고 중앙집권화하려고 노력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구심적인 지명은 바흐찐이 정의한 권위적인 언어이자 절대적인 언어(absolute language)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이에 반해, 지명의 원심력(centrifugal force of place name)은 모든 단일성과 통일성을 해체하고 분리하여 다양화하고 다층화하려는 힘으로, 중심에서 멀어지려는 방사성과 다양성을 지향한다. 주로 피지배 계층에 의해 사용되는 원심적인 지명은 고유 지명을 대표하여 지명의 구심력을 붕괴시키고 지방분권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한편 지명을 단일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비판하고 이에 저항한다.

현재의 한반도에서 지명의 다중성과 복잡성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이유는 역사상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명 변동과 이에 상응하는 지명 영역의 형성과 결합이 끊임없이 빈번하게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순수한 우리말로 호칭되던 고유 지명을 한자화(漢字化)하는 구심적인 지명의 역사는 중국 문명에 호의적이고 사대적(事大的)이었던 중앙과 지방 권력, 그리고 지배적인 사회 주체들에 의해 지난 수천 년간 지속되어 왔다.<sup>18)</sup> 한반도의 지명은 전체적으로 한자의 발음(音)보다는 의미(訓)가 중시되는 순수한 한자 지명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어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 특정한 사회적 주체와 집단의 아이덴티티, 이데올로기,

권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해 왔다. 그 결과 구심적인 지명들은 고유 지명들을 포함한 원시적인 지명들을 지배 내지 억압을 하고 변형 내지 변질을 시키면서 지명의 표기와 지명의 영역을 특정한 방식과 형태로 고착화시켰다(김순배, 2004, 103-105).<sup>19)</sup>

한편, 고유 지명의 인위적인 한자화는 표기법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명의 개정을 주도했던 사회적 주체가 의도하지 않았던 지명 본래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우연한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에는 이미 한자화한 지명이 원래의 지명 표기자를 동음이의자(同音異義字)(取音)나 이음유의(異音類義)의 다른 한자로 대치한 경우(取義)도 있고, 두 지역이 한 단위의 행정 구역으로 개편할 때 각 지명의 한자(1字)씩 취하여 하나의 지명을 구성한 경우도 있다(김순배, 2004, 26). 특히 조선 시대 중앙 행정 권력이 군현 단위 지명을 통일하려는 작업과 궤를 같이하는 지방의 관인층(官人層)과 사족(士族)들은 전래의 세 글자(3字) 이상의 고유한 촌락 지명을 두 글자(2字)의 유교적이고 미화적인 지명으로 획일화하는 작업을 국지적 스케일의 촌락 단위에서까지 실천함으로써 지명의 구심력을 강화하였다.<sup>20)</sup>

## 2) 지명 영역의 아이덴티티와 경합

### (1) 경계와 영역의 구획과 영역적 아이덴티티의 구축

특정한 장소에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공간적 범위의 한계, 즉 경계(boundary)<sup>21)</sup>가 설정된 다음에는, 이러한 경계의 내부로 특정한 사회적 관계들에 의해 묶여지는 영역(territory)이 구획된다(류제현, 1999, 189-190; 남호엽, 2001, 36-39). 외부적 경계가 그어지는 장소는 내부적으로 일정한 영역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영역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관리하고 확장하려는 능력, 즉 영역성(territoriality)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경계와 영역은 장소감이 장소 아이덴티티를 거쳐 영역성으로 발전하는데 필수적인 물리적 조건이다. 영역성이 더욱 발전하면, 영역 내부의 아이덴티티는 더욱 강화되어 영역 외부로도 확장되는 과정, 즉 영역화(territorialization)라는 단계에 진입한다.

이와 같은 영역화는 공간적 관계가 사회적 관계로 전환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공간적 관계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사회적 주체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이러한 관계의 쌍방향 전환에 중재자로 작용한다(남호엽, 2001, 32). 더구나 영역화는 언제나 공간적인 차이를 가지고 진행되므로, 모든 사회적 주체들은 제각기 자기 고유의 영역을 기반으로 하는 아이덴티티, 즉 영역적 아이덴티티(territorial identity)를 가지게 된다. 특정한 사회적 집단의 아이덴티티는 자기 집단 내부의 동일성과 다른 집단 내부의 동일성이 가지는 차이성, 즉 타자성(Otherness)을 식별하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의 사회적 주체가 '우리들' 집단을 '그들' 집단과 구별할 때 흔히 경계를 가진 영역을 전제로 한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주체의 아이덴티티는 곧 영역적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이다(Crang, 1998, 61).

또한 영역적 아이덴티티는 경계를 가진 영역의 구획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일단 형성된 다음에는 반대로 현재의 경계와 영역을 고정시키고 확정하는 작용을 한다. '우리들'이라는 집단은 자신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규정한 다음 일정한 경계로 구획된 영역 내부에 위치시키는 반면, 그 나머지의 '그들'을 '나쁜' 사람들로 규정한 다음 이러한 경계 외부의 영역에 위치시킨다. 일정한 경계를 기준으로, '우리들'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는 그 내부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반면, '그들'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그 영역의 외부로 배제하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영역적 아이덴티티가 구축되는 것이다. 하지만 '좋은' 우리들과 '나쁜' 그들을 분류하는 기준, 즉 경계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시간이 흐르며 변하는 동안에도 언제나 권력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경계 긋기는 바로 권력을 가진 집단이 권력을 가지지 못한 집단을 배제하고 주변화하여 일정한 공간을 정화하고 장악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류제현, 1999, 190). 아이덴티티의 구축과 영향을 주고받는 경계와 영역의 구획에는 갈등과 경합의 권력관계가 끊임없이 개입함에 따라 아이덴티티의 경계와 영역은 영구히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동한다. 그런데 지명은 물리적이고 형상적인 차원에서 지리적 경계와 영역을 확인하고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추상

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에서 영역적 아이덴티티를 재현하고 공고히 하는데도 일조를 한다. 지명의 명명과 변경이 ‘우리들’과 ‘그들’을 분리시키는 경계를 긋고 영역을 나누는 과정에 깊이 연루되는 경우에는 지명이라는 언어적 요소는 구체적으로 영역의 형성과 경합의 수단뿐만 아니라 대상이 된다.

## (2) 지명 영역의 형성과 경합

한반도에서 영역적 아이덴티티의 형성에 관여하는 경계, 영역, 영역성, 영역화라는 속성들은 일반적으로 지명의 형상과 표상을 통하여 실현되었다. 특정한 사회적 주체들에 의해 재현되고 전유된 지명은 때때로 일정한 경계와 영역을 창출하고 영역을 확장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다양한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를 소지하는 사회적 주체들이 참여하는 복잡한 권력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한국 지명의 표기자와 의미는 역동적인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지명의 경계와 영역이 끊임없이 변동하는 동안 특정한 영역성은 강화되어 새로운 영역화가 촉진되었지만, 이에 따른 영역에 대한 월경(越境)(transgression)이 부분적으로 시도되기도 하였다.<sup>22)</sup> 한반도에서 지명 변천과 영역 변동의 상호 관계는 지명의 표기자나 의미가 지명 영역과 더불어 변화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지명 표기자나 의미가 지명 영역과 더불어 변화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충북 충주시 이류면 금곡리가 있다. 여기에서 ‘쇠실고개’, ‘상금곡(上金谷)’과 ‘윗 쇠실’, ‘下金谷(하금곡)’과 ‘아랫 쇠실’이라는 지명들은 남한강 지류인 요도천의 소규모 곡지를 따라 붙여진 ‘쇠실’이라는 고유 지명에서 파생된 것으로, 제각기 해발 고도에 따라 상이한 경계와 영역들을 확보하여 왔다. 다음으로, 지명 표기자나 의미가 변화하지 않으며 지명 영역이 변화한 사례로는 ‘금강(錦江)’과 ‘갑천(甲川)’(대전시)이 있다. 현재에는 금강으로 통칭되는 조선시대 회덕현 부근의 하천 유역은 상류로부터 적동진(옥천)~이원진(=형각진·형강)~검단연~신탄진~나리진(연기)으로 불리었다. 반면에 현재 갑천으로 통칭되는 하천 유역은 상류로부터 한삼천~대둔천(논산)~중산천~차탄(진잠)~성천(공주 유성)~선암천(=갑

천)(회덕)으로 지칭되었다. 원래 ‘금강’은 임진왜란 이후 충청도 감영(監營)이 자리 잡은 공주목 치소의 공산성 부근 하천의 명칭이었고, ‘갑천’은 회덕현의 읍기(邑基)였던 현재의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부근 하천의 명칭이었다. 현대에 들어와, 행정 중심지 부근의 하천 지명들이 하천 유역 전체에 산재하는 다양한 하천 지명들을 대신하여 상·하류로 자신들의 명명 범위를 확대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면, 금강(錦江)이란 지명은 처음에 『新增東國輿地勝覽』(1530)의 공주목 산천조(山川條)에만 표기되어 있었지만 150여년이 지난 『東國輿地志』(17세기 중후반)에는 상류와 하류에 있는 회덕현, 정산현, 부여현, 임천군, 석성현, 한산군에도 표기되어 있다.

하천 지명은 하천 유역과 지류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민들에 의해 다양하게 지칭되었으며,<sup>23)</sup> 주로 하천 유역에 존재하는 인근의 촌락 지명이 하천 지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 중앙과 지방 행정 권력에 의해 특정한 지명, 특히 행정 기관에 인접한 하천 지명으로 하천의 상·하류를 통칭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지명 언중의 하천 유역에 대한 지리적 인식의 확대에 인하여 행정적으로 중심성이 강한 촌락과 도시 부근의 하천 지명으로 유역 전체를 지칭하는 빈도가 증가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지명의 영역을 둘러싼 경쟁 또는 경합에서 열세에 놓인 소하천이나 지류의 지명들은 대체로 소멸되거나 사용 빈도가 제한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지명 영역의 변동은 지명의 구심력으로 인하여 하천 지명의 다양성은 감소하고 그 대신 효율성과 통일성이 증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른바 지명 영역의 변화에 사회적 권력 관계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이른바 스케일 정치를 동반하였을 것이다.

## 3) 지명을 둘러싼 스케일 정치

### (1) 스케일 정치의 개념

스케일(scale)은 지리적 영역의 상대적인 크기(size)와 수준(level)을 의미하는 용어로, 국지적 스케일(local scale)에서 지역적 스케일(regional scale)과 국가적 스케일(national scale)을 거쳐 대륙적 스케일

(continental scale)과 지구적 스케일(global scale)에 이르는 다양한 규모를 포함한다. 스케일은 보다 단순하게는 연구 대상의 규모나 범위를 지칭하지만, 보다 복잡하게는 계층화된 관계 속에 자리하는 특정한 층위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스케일을 후자와 같이 수직적인 권력 관계를 함유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므로 스케일의 축소와 확대는 곧 정치적인 권력 관계의 재편을 동반한다고 가정한다(류연택, 2006, 37). 스케일의 개념을 활용하는 최근의 연구들은 구성주의적 접근에 근거하여 스케일을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구축되는 유동적인 생산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Delancy and Leitner, 1997; Marston, 2000; 정현주, 2006, 480에서 재인용). 이러한 강조는 스케일을 단편적이고 고정적인 정태적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규정되고 생산되는 동태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스케일은 고정 불변한 독립적인 실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동적인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며, 공간, 장소, 환경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체계로 구성된다(Marston, 2000, 221). 스케일은 사회적 관계의 공간적 수준으로 파악되기도 하고, 공간적인 이해관계나 공간의 역학을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로 파악되기도 한다. 개별적인 사회적 주체나 집단은 자신들의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를 공간적으로 표상하기 위하여 다양한 스케일을 구축하고, 이러한 공간적 표상은 유동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의도적으로 구축한 스케일에 맞추어 가시화 된다(남호엽, 2001, 50-51). 스케일을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구축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기존의 스케일을 수축하고 확대하거나, 아니면 전혀 새로운 스케일을 창조하는 노력, 즉 스케일 정치(politics of scale)를 요구한다. 그리고 스케일 정치가 권력 관계와 영역의 확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스케일의 상승(scaling up)과 스케일의 하강(scaling down)이라는 스케일 전략(scalar strategy)을 통하여 사회적 포함과 배제, 그리고 정당화(legitimation)를 동반해야 한다(류연택, 2006, 38; 정현주, 2006, 482).

## (2) 지명을 통한 스케일 정치

스케일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구성물이라는 가정

에 근거하는 스케일 정치라는 개념은 지명 영역의 수축과 확장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방법론을 제공해 준다. 스케일의 관점에서 지명은 영역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대(大)지명, 중(中)지명, 소(小)지명으로 분류되지만, 영역의 형태를 기준으로 하면 점(點)지명, 선(線)지명, 면(面)지명으로 분류된다. 흔히, 지명의 변동은 지명의 경계와 영역의 변동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명이 통용되는 공간적 범위, 즉 스케일의 변동을 야기한다. 이 때, 지명을 수단이나 대상으로 하는 스케일 정치는 구체적으로 스케일의 상승과 스케일의 하강이라는 상반된 전략을 통하여 실행된다. 먼저 스케일의 상승(scaling up)이라는 전략은 특정한 사회적 주체의 아이덴티티를 재현하는 지명의 영역이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충청도 공주목 산내면의 대전(한밭)과 은진현 화지면의 논산(놀피)은 소규모 촌락의 지명이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철도교통의 발달에 따라 일본인의 집단 거주지가 성장하면서 이들 지명의 영역이 현재의 대전광역시와 논산시의 범위로 확장되었다.<sup>24)</sup>

다음으로, 스케일의 하강(scaling down)이라는 전략은 특정한 사회적 주체의 아이덴티티를 재현하는 지명의 영역이 축소되거나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사례로는 삼국시대 '남부여'라는 백제국의 별칭이 현재는 충남 부여군의 군(郡) 지명으로 축소된 경우와 조선시대 존재했던 군현(郡縣)지명이 1914년 일제에 의한 대규모적인 행정 구역 개편으로 군현 지명이면(面) 지명과 촌락 지명으로 축소된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 면 지명으로 축소된 사례는 은진현>은진면, 회덕현>회덕동, 덕진현>덕진동, 정산현>정산면, 한산군>한산면, 진잠현>진잠동 등이 있고, 촌락 지명으로 축소된 사례는 가림군>부여군 임천면 가림리, 비래현>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덕은현>논산시 가야곡면 육곡리 덕은골·삼전리 덕은당 등이 해당된다. 그밖에, 면 지명이 촌락 지명으로 축소된 사례는 석성현 증산면·비당면·원북면>증산리·비당리·원북리, 노성현 상도면·두사면·장구면>상도리·두사리·장구리, 연산현 백석면·모촌면·외성면>백석리·모촌리·외성리 등이 있다.

#### 4. 결론

지명과 이러한 지명을 짓고 부르는 사회적 주체는 우주(宇宙)의 내부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자기 내부에 스스로의 우주를 품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존재가 우주를 품고 있다는 것은 자기 내부에 공간적 질서와 시간적 질서가 조화롭게 뒤섞여 있음을 의미한다.<sup>25)</sup> 따라서 지명과 사회적 주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함축되어 있는 수평적 공간의 공시성과 수직적 시간의 통시성을 적절한 접점에서 통합해 분석하는 시각과 방법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 지명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다양성과 다중성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한국 지명이 역사적으로 경험한 다양한 사회 문화적 변동의 공간적 변이에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한반도에서는 수천 년의 역사와 완충지대라는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정치-사회적 격변과 문화 변동이 끊임없이 발생하였으며 상이한 사회적 주체들이 상호 갈등하고 경합하는 권력 관계가 양산되었다. 더구나 사회적 신분의 차별에 따른 언어생활의 분열은 한국 지명에 일정한 권력 관계와 연결되어 복수 지명이 상호 대립하며 공존하는 이른바 경합 지명이 발달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와 같은 한국 지명의 경합적 성격은 문화 전쟁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는 문화정치학의 연구 주제로 적합한 것이다.

한 가지 특성으로 단정 짓기 어려운 한국 지명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전통 문화지리학이 수행해 온 결과적이고 형태적인 문화 요소로서의 지명 연구를 극복하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는 연구 방법론으로는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신문화지리학의 문화정치학 분야가 주목된다. 문화정치학은 특정한 문화를 복합적인 과정, 관계, 구성의 산물로 가정하고, 문화를 다양한 사회적 권력 관계가 경쟁, 경합, 지배, 저항하는 영역(realm), 통로(path), 매개(medium)로 규정한다. 문화정치학은 사회적 주체들이 문화의 의미를 둘러싸고 벌이는 갈등과 경합의 권력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로 한국 지명을 둘러싼 사회적 주체들 간의 권력 관계를 분석하는데 효과적인 방법론을 제공한다. 한국 지명을 문화정치학적

관점과 방법으로 연구하기 위한 당위성은 이제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실천 수준에서 입증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장소 아이덴티티, 영역 경합, 스케일 정치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주체들이 한국 지명을 대상으로 실천한 문화정치적 과정들을 적절히 분석하는 이론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지명은 자연, 사회적 주체, 타자를 지칭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아이덴티티를 재현하여 장소 아이덴티티의 구축을 실현한다. 지명의 최우선적인 기능은 자연, 주체, 타자를 지칭하여 특정한 존재가 있음을 언어적, 시각적, 물리적으로 확증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사회적 주체에 대한 공간적 정보를 타자에게 제공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주체의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를 대외적으로 표상하여 사회적 주체의 현존성을 확인해 준다. 한국의 지명이 사회적 주체의 아이덴티티를 재현하는 과정은 지명 명명과 지명 인식이라는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어 왔다. 여기에서 지명 명명 과정은 내부적 아이덴티티(수적-질적-자아 아이덴티티와 지명 명명)와 외부적 아이덴티티(정당화-저항-기획 아이덴티티의 지명 명명)를 재현하는 선택적인 과정을 거쳐 왔다. 사회적 주체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근거로 외부에 존재하는 지명을 인식하는 과정을 분석할 때는 폐쇄의 동일시 이론(동일시-역동일시-비동일시)과 홀의 디코딩 이론(지배적 헤게모니적-타협적-대항적 위치)이 적용될 수 있다. 이들 이론은 특정한 사회적 주체가 지명을 대상 또는 수단으로 하여 일정한 아이덴티티를 포함하고 배제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블로쉬노프의 이데올로기적 기호 이론은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하나의 지명에 투영되는 과정, 즉 이데올로기적 기호화를 분석하는데 상대적으로 유용할 것이다.

특정한 사회적 주체가 하나의 지명을 매개로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를 재현하는 과정은 곧 자기 고유의 장소 아이덴티티를 구축해 가는 과정이다. 장소 아이덴티티는 사회적 주체가 장소와 맺는 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소 아이덴티티를 재현하는 지명 사례들은 한반도 전역에서 풍부하게 발견된다. 그 대표적 사례로는 특정한 종족(宗族)에 대한 소속감을 표상하는 성씨 지명, 군현에 대한 소속감을

표상하는 촌락 지명, 특정한 중국 고사(故事)를 재현하는 지명,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부과된 일본식 지명 등이 있다. 사회적 주체가 특정한 지명을 인식하는 과정은 곧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는 포함과 배제의 과정이며, 여기에는 가치 평가를 실천하는 권력 관계가 필연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한반도에서 특정한 사회적 주체가 하나의 지명을 권력을 실천하는 매개이자 수단으로 이용하는 동안, 그 지명은 일정한 스케일의 지명 영역을 형성하고 타자들이 생산한 지명 영역과 경합하게 된다. 한반도에서 지명을 수단으로 하는 영역의 형성과 경합 과정을 이해하려면, 사회적 주체에 의해 재현되고 전유된 지명이 일정한 스케일의 경계와 영역을 획득하고 자신의 영역을 더욱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주체가 권력 관계를 통하여 지명의 영역을 인위적으로 축소하고 확장한 과정은 스케일 정치라는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것이다.

한국 지명을 매개로 실현되는 사회적 권력 관계는 촌락 스케일에서 국가 스케일에 이르는 지명의 영역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산포되어 경관, 장소, 공간을 형성하는 주요 인자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작용을 연구하는 한국의 지명에 대한 문화정치학적 접근은 한국 지명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 생산의 역동성을 지리학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다. 한국의 지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화 전쟁에 대한 연구에는, 상이한 사회적 주체들이 실천하는 권력 관계의 실체와 이러한 권력 관계가 물리적으로 형상화되어온 경계와 영역에 대한 정밀한 분석, 나아가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이론의 구축에는 블로쉬노프(바흐찐)의 이데올로기 기호론, 기호의 다액센트성, 언어의 구심력과 원심력, 그리고 미셸 페식의 동일시 이론과 유물론적 담론 이론 등이 주목된다. 끝으로, 한국의 지명은 비록 지리적(공간적) 역동성으로 대변되는 문화정치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체득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사례가 충분히 소개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꾸준한 사례 발굴과 함께 다양한 문화정치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일정한 범위의 지역을 단위로 하는 기초적이고 학제적(interdisciplinary)인 지명 연구가 전국적으로 연속되어야 할 것이다.

註

- 1) 한문 원전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形而上者 得意斯得名 得名斯得象 不得名 非得象者也 故語道至於不能象 則名言亡矣.”
- 2)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해 온 신문화지리학 연구는 영국의 문화 연구(cultural studies), 특히 윌리엄스(Raymond Williams)의 문화 유물론(cultural materialism)을 필두로 발달해 온 문화 이론(cultural theories)과 언어 이론(language theories)의 일부로부터 자양분을 얻어 왔다. 문화 연구로부터 영향을 받은 영국의 문화지리학자 잭슨(Peter Jackson)은 문화(지리)와 사회(지리)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문화 정치(cultural politics)가 암시하는 관계(relations)의 정치적 차원을 강조한 바 있다(Jackson, 1989, 171). 이와 같은 문화 정치에 관한 그의 주장은 상호 경합하는 지명들을 사회적 주체들이 상호 투쟁하는 권력 관계의 장으로 바라보려는 지명의 문화 정치학적 연구에 물꼬를 터 주었다(Yeoh, 1992; Pred, 1992; Lewis and Wigen, 1997; Nash, 1999; Azaryahu and Golan, 2001; Light, 2004).
- 3) 문화 전쟁은 반드시 공간을 필요로 하며, 이는 바로 영토(territory)를 둘러싼 투쟁이다.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전개되고 있는 문화 전쟁은 자기 고유의 형상(shape)과 양식(style)을 지니고 있는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대상으로 하는 투쟁이다. 문화 전쟁은 아이덴티티의 형상과 내용을 결정하고 이들에 일정한 지위를 부여하는데 필요한 권력(power)을 서로 먼저 차지하려는 일종의 전쟁이다. 이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계 속에 구축되는 지리(geographies)를 반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또한 지리 자체의 구축에 기여하는 전쟁인 것이다. 문화 전쟁의 어느 한 순간은 그것이 발생하는 장소의 지리를 변형시켜 후속되는 문화 전쟁의 맥락(context)과 지리적 상황을 새로이 조성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공간이 문화적 투쟁의 형상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투쟁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형상을 결정하는 것이다(Mitchell, 2000, 5).
- 4) 이러한 관점은 생물적 요소로서의 인간 주체(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 구조적-순환적 요소로서의 공간(땅)과 언어(지명), 관계적 요소로서의 차이와 관계(권력)를 주축으로 삼아 인간과 공간-언어(지명)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들 세 개의 주축은 권력 관계에 대한 사회적 주체의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상호 작용을 하며 한국 지명의 문화정치적 과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 5) 지명(地名)의 유연성(有緣性)이란 지명이 발생한 근거가 되는 특정한 사실과 현상이 지명에 함축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달리 말하면, 이는 언어(기호)의 형식(기표)과 내용(기의) 사이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인 언어가



자의성(arbitrariness)을 지니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명이라는 특수적인 언어는 대체로 그것이 지칭되는 범위와 공간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지명의 유연성은 유물론적 언어 이론이 지명의 연구에 유효하며 지명 연구에 언어학이나 역사학은 물론 지리학의 참여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이유가 된다.

- 6) 보다 특수한 사례로는, 지방적인 범위에서 특정한 종족의 주요 거주지 명칭을 성씨 앞에 덧붙여 지연(地緣)과 혈연(血緣)의 관계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문옥표(2004, 32)에 의하면, 안동시에 살고 있는 의성 김씨는 지역사회에서 '천전파(川前派)' 종족으로 두루 알려져 있는데, 이는 김씨라는 성씨 명칭에 그들 근거지의 지명인 '내앞(川前的 한글 표기)'이라는 지명을 붙여 내앞 김씨로 통칭한 결과이다. 또한 그녀는 안동시에서 풍산면 하회의 풍산 류씨는 '하회' 류씨, 무실의 전주 류씨는 '무실' 류씨, 예안면 토계동의 진성 이씨는 '토계' 이씨로 부른다고 지적하였다. 다른 지방에서 발견되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조선시대 호서사림(湖西士林)들 사이에 통용되던 '회덕' 은송(회덕의 은진 송씨)과 '연산' 팽김(연산의 팽산 김씨)이란 호칭이 있다.
- 7) 재현(representation)이라는 지명의 기능은 타자와 관계하여 특정한 주체와 집단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아이덴티티의 구축에 크게 기여한다. Edward Said(1978)는 '상상적 지리(imaginative geographies)'의 구축에 작용하는 상이한 장소들에 대한 지리적 구별(geographical distinction)과 경계(boundaries)의 구획, 그리고 장소의 명명(naming place)은 곧 '우리들'과 '그들'의 차별을 통해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제시하였다(Baldwin *et al.*, 2004, 172).
- 8) 권선정(2004, 167-181)은 지명을 장소를 구성하는 경관 텍스트(landscape text)로 규정하고 지명이 의사소통체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집단간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적 구성물이자 경관 텍스트로서의 지명을 분석하려면 형태적 차원보다는 의미적 차원을 중요시하는 기어츠(Clifford Geertz)의 '두꺼운 기술(thick description)'이라는 해석적 작업을 통하여 지명 연구를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9) Allan Pred(1992)는 권력이 장소, 언어, 실천과 가지는 관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상이한 맥락 속에서 장소가 권력 관계와 생활사의 변형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시에 존재하는 공식(official) 지명과 비공식(folk, popular) 지명을 권력 관계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다음 지명이 권력 투쟁을 포함하는 문화적인 계급 전쟁(cultural class war)의 무기인 동시에 상이한 사회 집단들이 벌이는 권력을 위한 전투(battle for power)의 대상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 10) 본 연구는 담론적 주체 혹은 사회적 주체에 대하여 보편적

주체가 지니고 있는 선형적, 필연적, 강압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언어적 전환 이후에 구조적인 실체로 주목받고 있는 언어와 언어적 요소가 내재된 지명을 보편적 주체의 하나로 분류하였다.

- 11) 1970년대 홀은 인코딩(encoding)(기호 또는 암호의 생산)과 디코딩(decoding)(기호의 소비나 해독) 사이의 불일치를 탐구한 「Encoding/decoding」이라는 논문을 통해 기호의 생산과 소비의 간극을 주장하였다. 그는 기호의 생산과 기호의 소비의 간극에 세 가지 디코딩의 위치를 설정한 다음, 지배적인 기호 규칙(code) 내에서 인코딩의 규칙에 충실한 ① 지배적-헤게모니적 위치(dominant-hegemonic position), 지배적인 기호 규칙에 동조하면서도 부분적으로 그것에 저항하는 ② 타협적 위치(negotiated position), 지배적 기호 규칙을 완전히 거슬러 읽는 ③ 대항적 위치(oppositional position)를 제시하였다(Hall, 1980, 136-138; 김용규, 2007, 13에서 재인용)
- 12) 특정한 사회 집단의 사회적 시야에 들어와 가치평가적인 액센트를 받는 과정은 바로 폐쇄가 언급한 보편적 주체를 동일시하는 과정이고, 홀이 제시한 기호의 지배적인 의미 규칙에 충실한 지배적-헤게모니적 위치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 13) 이밖에 상호대립적인 사회적 주체들이 원래 동일한 하나의 지명으로부터 서로 전혀 다른 의미의 지명들을 파생시킨 사례로는 무냇골(水出/文學澗)(충남 서천군 기산면 화산리)과 수문골(濶澗/崇文澗)(충남 서천군 화양면 활동리)이 있다.
- 14) 이와 관련하여 서인(西人) 성향의 흥주 지방 사족들에 의해 1675년(숙종 1)에는 노은사(魯恩祠)란 사우가 건립되고, 1712년(숙종 38)에는 녹운서원(綠雲書院)이란 액호(額號)가 노은서원(魯恩書院)으로 개정되면서 재사액(再賜額)을 받았다(『列邑院字事蹟』, 洪州牧書院事蹟成冊, 魯恩書院 賜額致祭文), 그밖에 조선시대 인명(人名)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던 유교적인 '避諱' 관념이 작용하여 지명이 변경된 사례도 있다: 조선 영조 26년(1750) 대구 유생 23인이 당시 대구 지명이 孔子의 이름인 '丘'와 같이 향사(享祀)를 드릴 때 송구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所謂大丘之丘字 卽孔子名字也...臣等每當享祀之日...而聽其讚祝之聲 則心甚悚懼 不能自安(承政院日記 英祖26年 12月 2日 辛未))라는 상소를 국가에 올린 이후 '丘'가 '邱'로 변경되었다.
- 15) 이와 관련하여, Entrikin(1997, 263)은 장소의 관계적인 성격이 대상(objects)과 정서(affect)를 결합시킴으로써 자아(self)와 타자의 상호(구성적인)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아이덴티티의 구축(construction of identity)과 장소를 관련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아와 타자의 상호(구성적인) 관

- 제이다. 그리하여 그는 장소를 단순히 인간들의 활동 무대나 배경이 아닌 인간 행동을 위한 맥락(context for human actions)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16) 특히, 일제강점기 대전부에 존재했던 ‘타이텐즈’ (大田富士山)은 일본인의 아이덴티티와 환경 인식과 관련된 일본식 지명이다. 원래 어병산(御屏山)이라는 지명이 본국의 후지산(富士山: フジサン, )과 지형이 유사하다는 일본인들의 인식에 따라 개명되었던 것이다(지현영, 2001, 23).
- 17) 이와 관련하여, Lewis and Wigen(1997)은 Orient와 Occident 또는 East와 West라는 지명의 의미, 경계. 영역이 비유럽적인 타자를 배제하려는 유럽중심주의의 메타-지리(metageography)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문화적인 구성물임을 지적하였다.
- 18) 지명을 한자로 표기하는 차차표기 방법은 과거 고유한 표기 문자를 보유하지 못한 한국인의 필연적인 지명 표기 방법으로 고유 지명의 발음이나 의미를 한자로 옮겨 적는 이두식(吏讀式) 표현과 유사한 것이었다. 이러한 방법은 점차 순수한 한자 지명 표기로 변화하는 절차를 밟았으며, 이러한 절차상 우선적으로 전국의 주요 산과 하천 또는 대단위 주요 행정 구역에 음성 상태로 구전되어 오는 고유 지명들이 공식화된 한자 지명으로 변경 또는 대체되었다(김순배, 2004, 24).
- 19) 한준수(1998, 100-101)는 지명의 구심력을 행사하는 중앙의 행정 권력이 단행한 지명의 개정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통일신라 경덕왕 16년(757) 군현제 개편의 계획적이고 통일적인 특징을 설명하며 그 당시 군사적 기능을 가졌던 10정(停) 주둔지의 군현 개편 상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三良火縣>玄驍縣(良州), 召多縣>玄武縣(康州), 南川縣>黃武縣(漢州), 骨乃斤縣>黃驍縣(漢州), 伐力川縣>綠驍縣(朔州), 伊火弓縣>綠武縣(溟州), 古良夫里縣>靑正縣(熊州), 居斯勿縣>靑雄縣(全州), 未多夫里縣>玄雄縣(武州). 또한 1914년 일제에 의한 전국 단위의 행정 구역 개편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가에 의해 획일적으로 구획된 행정촌이 완성되는 사건이었다. 그 결과 강화된 촌락 지명의 통일적 경향은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191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0) 예를 들면, 조선 중기의 유학자인 한강(寒岡) 정구(鄭逵)는 선조 19년(1586) 함안군수(咸安郡守) 재임 시에 군내 14개 리(里)(面과 같은 지역촌) 중 8개 리명(里名)을 중국식 두 글자(2字) 한자 지명으로 개정(並火谷>並谷, 阿道>安道, 安尼大>安仁, 山法彌>山翼 등) 『咸州誌(1587년)』하였다. 그리고 경북 안동의 읍지인 『永嘉誌(1608년)』에는 辰山>龍山村, 都叱質>道谷村, 今音知>金溪, 上槽谷>上桂谷, 首冬>水東, 西豆所乃>兜率村, 所也>松坡, 逆水村>嘉水村, 伊火於>益友, 末由>武夷, 刀峯>道津, 梅墅>馬沙로
- 의 지명 개정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이수진, 1989, 144-146).
- 21) 특히 지정학(geopolitics)이라는 정치지리학의 하부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경계(boundary)라는 용어는 해당 문맥에 따라 접경(border), 접경지(borderland), 변경(frontier)이란 개념으로 다양하게 해석된다. 다양한 정치체(政治體) 사이에 존재하는 분계선(分界線)을 의미하는 경계라는 용어는 경제와 인접한 지역 혹은 경계의 존재로 인하여 변형된 사회와 자연 경관이 있는 지역을 지칭하는 접경이라는 용어로 대체되기도 한다. 또한 미디어에서 경계를 언급할 때 인용되는 변경이라는 용어는 특정한 주체나 집단에 의해 ‘비어 있는’ 곳으로 잘못 인식된 지역으로의 영토의 확장 과정을 묘사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Prescott, 1987; 한국지정학연구회, 2007, 218에서 재인용).
- 22) 지명 영역의 변동에 관하여 지현영(2001, 97)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지명 그것을 언어활동에 끌어들이는 화자(話者)들의 생활공간과 그 지명의 입지와와 거리 또는 지명 세력의 힘관계라든가 그 지명과의 접촉 관계도에 따라 그 표상(表象) 범위(지명영역)가 유동·신축하는 수이상(殊異性)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러한 지명의 공시적(共時的) 활동에 있어서의 가변성은 지명표상의 변화, 지명표상 공간의 이동, 지명의 신(新)발생, 지명의 변용 또는 소멸이라는 성장 변화를 몰아온 연원적(淵源的)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하겠다.”
- 23) 양보경(1994, 100)은 ‘한강(漢江)’이라는 하천 지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리가 지금 통칭해서 한강이라 부르고 있는 지명이 조선시대에는 한성부의 동측으로부터 한강, 노량강, 용산강, 양화도, 공암진, 조강 등의 이름으로 유역별로 달리 명명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하천의 이름이 각 유역에 따라 주민들에 의해 다양하게 불리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과거 한국의 하천 지명 중에는 이와 유사한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조선 전기 성현(成俔)(1439~1504)의 『慵齋叢話』에는 그 당시 한강의 유역별 명칭이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문 원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의 별장이 양천(陽川)과 김포(金浦) 사이에 있는데 정자를 강 위에 세워 달밤에는 배를 타고 위로는 한강(漢江)으로부터 아래로는 조강(祖江)에 까지 올라가고 혹은 내려올 때 노래 잘하는 기생과 여러 첩이 항상 따라 다녔다”(민족문화추진회 편, 1997, 280).
- 24) 일제강점기 지명에 대한 스케일의 상승이라는 전략에 관한 지리학계의 논의로는 홍금수(2007, 118-120)의 논문이 있다. 이 논문에서 그는 근대적 지역구조로의 이행 과정에서 지명을 통한 지역구조 재편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논산과 강경을 사례로 간략히 언급하였다. 그는 1914년 행

정구역의 개편 당시 연산현, 은진현, 노성현을 통합하여 신설한 군 명칭으로 논산군(論山郡)이 선정되는 과정에 강경군(江景郡)으로 군 명칭을 바꾸려는 강경 거주민들과의 갈등과 경합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소개하였다. 또 다른 지명의 스케일이 상승한 사례로는, 1914년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충남 부여군의 규암리에서 유래한 규암면과 은산리에서 유래한 은산면이 각각 조선시대의 천을면과 방생면을 대신하는 면(面) 지명으로 등장한 경우가 있다.

- 25) '우주(宇宙)'라는 표현은 중국 전국 시대 말기의 책인 『시자(尸子)』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확장되어 있는 공간 구조를 ‘우(宇)’라하고, 옛 것은 가고 새로운 것이 오는 것을 ‘주(宙)’라 한다”(天地四方曰宇, 往古來今日宙)[참고: ‘宇’는 上下, 四方의 橫(空間), ‘宙’는 往古來今の 縱(時間)](이정우, 1996, 220; 성백효, 1992, 15)라고 설명되어 있다. 사회적 주체를 포함한 모든 사물과 현상은 시간과 공간의 좌표에 얽혀 존재한다. 그런데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근대적인 시선은 시간을 중심으로 사실과 현상을 구성하려는 ‘주합(宙合)’의 태도, 즉 불평등, 통일, 발전론, 진화론을 주류로 인정하였다. 이에 반해, 현대 후기의 공간적 전환 이후에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우연(宇連)’의 태도, 즉 평등, 다양성, 차이성, 관계성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개될 인문·사회과학의 인식론과 방법론은 ‘우연(宇連)’의 공간성과 ‘주합(宙合)’의 시간성이 조화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 文獻

- 강내희, 1992, “언어이론, 언어와 변형-변혁의 언어모델 비판과 주체의 ‘역동일시,’” 문화과학, 2, 11-46.
- 권선정, 2004, “지명의 사회적 구성,” 지리학연구, 38(2), 167-181.
- 김수진(譯), 2000,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 모더니티의 미래, 현실문화연구, 서울, 320-385(Hall, S., 1992, The question of cultural identity, in Stuart Hall, et al.(eds.), *Modernity and its Futures*, Open University Press, London).
- 김순배, 2004, 地名 變遷의 地域의 要因에 關한 研究: 16세기 이후 大田 지방의 漢字 地名을 사례로,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김용규, 2007, “스튜어트 홀과 영국 문화연구의 형성,” 새한영어영문학, 49(1), 1-29.
- 김용옥, 2000, 老子와 21세기(上), 통나무, 서울.
- 김종택, 2004, “일본 왕가의 본향 ‘고천원’은 어디인가,” 지명학, 10.
- 남호엽, 2001, 한국 사회과학에서의 민족정체성과 지역정체성의 관계,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 남풍현, 2000, 이두연구, 태학사, 서울.
- 도수희, 2003, 한국의 지명, 아카넷, 서울.
- 류연택, 2006, “스케일의 정치와 도시주택공간 생산,” 대한지리학회지, 37-38.
- 류제현, 1999, “충북정체성 탐구를 위한 인문지리학적 논의,” 충북학, 창간호, 177-212.
- 류제현, 2002, 한국문화지리, 살림, 서울.
- 문옥표·박병호·김광익·은기수·이충구, 2004, 조선양반의 생활세계-의성김씨 천전파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백산서당, 서울.
- 박명진·이영옥·김창남·정준영·손병우·주은우·주형일·양은경·김예란(譯), 2003, 문화 이론 사전, 한나래, 서울(Edgar, A. & Sedgwick, P.(eds.), 2002, *Cultural Theory: The Key Concepts*, Routledge, London).
- 박승규, 1995, “문화지리학의 최근 동향: ‘신’ 문화지리학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7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131-145.
- 송기한(譯), 1988,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 한겨레, 서울 (Voloshinov, V.N., 1973, *Marxism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Seminar Press, New York and London).
- 양보경, 1994, “서울의 산수와 지명,” 역사비평, 봄호.
- 이득재, 1992, “언어이론, 바흐친의 유물론적 언어이론,” 문화과학, 2, 85-106.
- 이무용, 2005, 공간의 문화정치학, 논형, 서울.
- 이수건, 1989,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서울.
- 이영택, 1986, 한국의 지명: 한국지명의 지리·역사적 고찰, 태평양, 서울.
- 이현재, 2005, “정체성(Identity) 개념 분석: 자율적 주체를 위한 시론,” 철학연구, 71(1), 263-292.
- 임동권 編, 2005, 청양의 지명과 전설, 청양문화원.
- 임병조·류제현, 2007, “포스트모던 시대에 적합한 지역 개념의 모색: 동일성(identity) 개념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2(4), 582-600.
- 전종한·류제현, 1999, “영미 역사지리학의 최근 동향과

- 사회역사지리학,” *문화역사지리*, 11, 169-186.
- 정현주, 2006, “사회운동의 공간성: 사회운동연구에 있어서 지리학적 기여에 대한 탐색,” *대한지리학회지*, 41(4), 470-490.
- 조주관, 2002, “언어의 구심력과 원심력: 바흐진의 언어철학을 중심으로,” *성곡논총*, 33(상).
- 지승중 · 김준형 · 허권수 · 정진상 · 박재홍, 2000, *근대 사회 변동과 양반*, 아세아문화사, 서울.
- 지현영, 2001, *한국 지명의 제문제*, 경인문화사, 서울.
- 한국고문서학회 編, 1996,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서울.
- 한국지정학연구회(譯), 2007,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길, 서울.
- 한글학회, 1974, *한국 지명 총람 4(충남편)*, 한글학회, 서울.
- 한준수, 1998, “신라 경덕왕대 군현제의 개편,” *북악사론*, 5.
- 홍금수, 2007, “근대형 지역구조로의 이행과 지역패권의 선점을 위한 도시담론의 동원,” *문화역사지리*, 19(1), 91-124.
- 慵齋叢話, 成倪, 민족문화추진회(1997).
- 正蒙, 張載, 책세상(2002).
- Angehrn, E., 1985, *Geschichte und Identität*, Berlin: Walter de Gruyter, 235.
- Azaryahu, M. and Golan, A., 2001, (Re)naming the landscape: The formation of the Hebrew map of Israel 1949-1960,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27(2), 178-195.
- Baldwin, E. and Longhurst, B., 2004, *Cultural Studies*, Prentice Hall, New York.
- Castells, M., 2004, *The Power of Identity*, Blackwell, Massachusetts.
- Crang, M., 1998, *Cultural Geography*, London & New York: Routledge, 102-103.
- Delaney, D. and Leitner, H., 1997, The political construction of scale, *Political Geography*, 16(2), 93-97.
- Entrikin, J. N., 1997, Place and Region 3,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1(2), 263-268.
- Hall, S., 1992, Encoding/decoding, in Stuart Hall, et al.(eds.), *Culture, Media, Language*, Routledge, London, 128-138.
- Jackson, P., 1995, *Maps of Meaning: An introduction to cultural geography*, Routledge, London.
- Lewis, M. W. and Wigen, K. E., 1997, *The Myth of Continents: A Critique of Metageograph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and Los Angeles.
- Light, D., 2004, Street names in Bucharest, 1990-1997: exploring the modern historical geographies of post-socialist change,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30(1), 154-172.
- Marston, S. A., 2000, The social construction of scal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4(2), 219-242.
- Massey, D. and Jess, P.(eds.), 1995, *A Place in the World? Place, Culture and Glob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Mitchell, D., 2000, *Cultural Geography: A Critical Introduction*, Blackwell, Oxford.
- Nash, C., 1999, Irish placenames: post-colonial location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4(4), 457-480.
- Pêcheux, M., 1975, *Language, Semantics and Ideology*, trans., Nagpal, H., 1982, The Macmillan Press, London.
- Pred, A., 1992, Languages of everyday practice and resistance: Stockholm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in Pred, A. and Watts, M.J.(eds.), *Reworking Modernity: Capitalisms and Symbolic Dissent*, Rutgers University Press, New Brunswick, 118-154.
- Rose, G., 1995, Place and identity: a sense of place, in Massey, D. and Jess, P.(eds.), *A Place in the World? Place, Cultures and Glob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Ryu, Je-Hun, 2005, Kyeryong Mountain as a Contested Place,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0(5), 553-570.
- Ryu, Yeon-Taek, 2007, The Politics of Scale: The Social and Political Construction of Geographical Scale in Korean Housing Politic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2(5), 691-709.
- Sack, R. D., 1986, *Human Territoriality: Its theory and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Schiller, N. G., 1997, Cultural Politics and the Politics of Culture, *Identities*, 4(1), 1-7.

Yeoh, B. S., 1992, Street names in colonial Singapore,  
*The Geographical Review*, 82(3), 313-322.

교신: 김순배, 363-791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산 7번  
지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gogeo@hanmail.net, 전화: 043-230-3616)

Correspondence: Sun-Bae Kim,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an 7, Darak-ri, Gangnae-myeon, Cheongweon-gun,  
Chungbuk, 363-791, South Korea (e-mail: gogeo@  
hanmail.net, phone: +82-43-230-3616)

최초투고일 08. 08. 14

최종접수일 08. 09. 16